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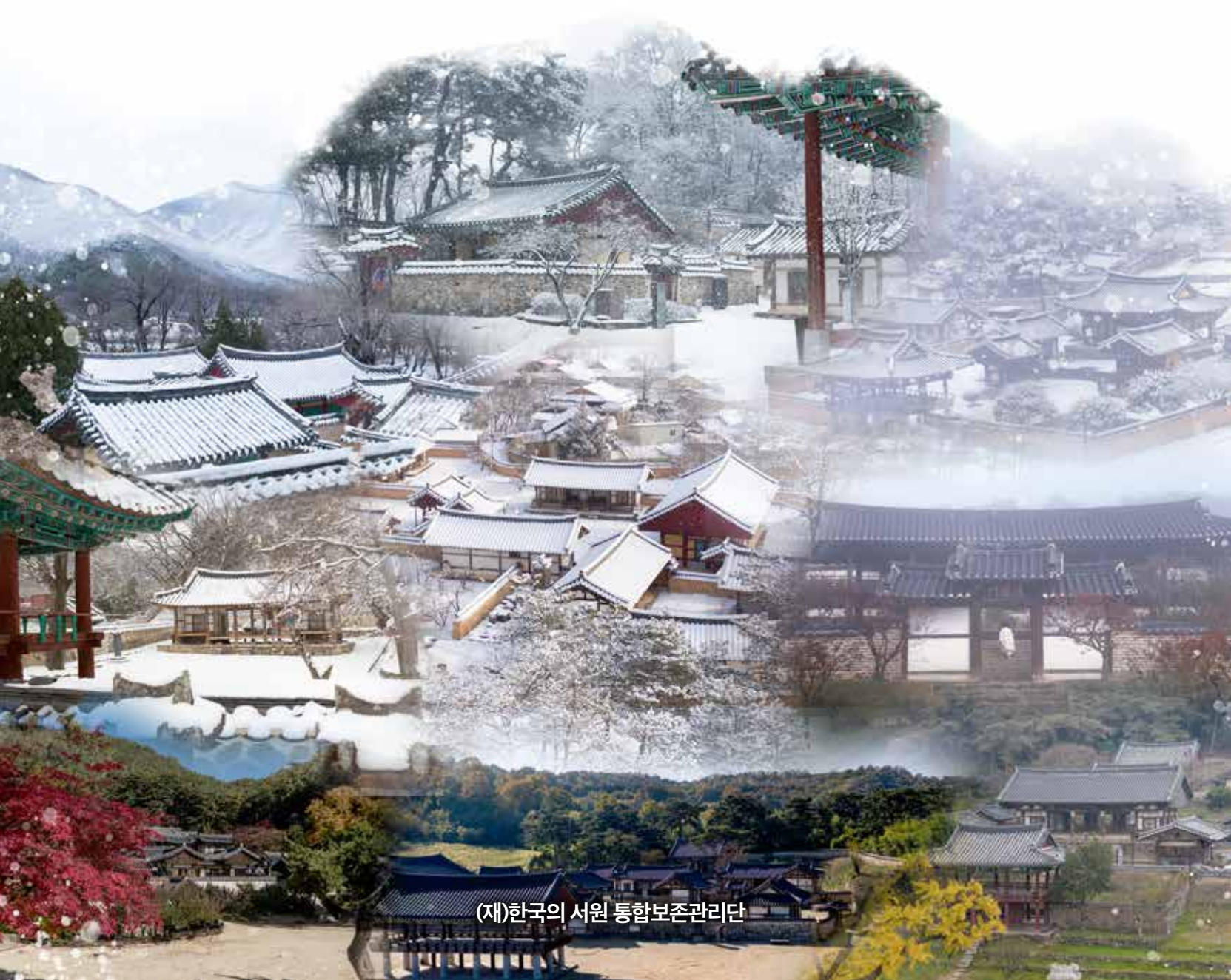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 서원산책

2020. 12. vol.2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서원은 조선 사회에 성리학<sup>1</sup>이 정착하면서 사람<sup>2</sup> 세력이 지방에 설립한 사립 고등교육기관이다. 서원은 성리학을 연구하며 인재를 교육하는 강당이 있는 강학 공간, 존경하는 스승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올리는 사당이 있는 제향 공간, 그리고 유생들이 시를 짓고 토론도 벌이며 휴식하고 교류하는 유식 공간<sup>3</sup>으로 구성되었다.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인격을 갈고닦는 인성교육에 중심을 두었다.

조선 시대 서원 중에서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의 9개 서원이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이들은 한국 서원의 총체적인 특성을 보여 준다.

'한국의 서원'은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세계유산 등재기준(iii)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이 되었다.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 걸쳐 건립된 이들 서원은 조선 시대 성리학이 교육과 사회 활동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또 이 서원들은 전국 각지의 지식인들이 제향을 올리고 강학을 하여 성리학 교육 체계를 만들고, 그것에 꼭 맞는 건물물을 지어, 성리학 가치가 담긴 독특한 역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었다.

1. 성리학 性理學: 중국 송나라 때에 주희가 집대성한 유학의 한 파
2. 사람 士林: 조선 시대 성리학적 가치를 중시하던 지식인을 일컫는 말
3. 유식공간 遊息空間: 자연 속에서 수양하고 휴식하는 일을 성리학을 배우는 과정의 하나로 보고, 자연과 더불어 수양할 수 있도록 서원 내외부에 조성한 공간

## 추진 경과

2012. 01.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2015. 01.  
등재신청서  
1차 제출

2016. 04.  
등재신청 철회

2016. 10. -  
2017. 03.  
이코모스 자문

2018. 01.  
등재신청서  
2차 제출

2019. 07.  
세계유산 등재

## '한국의 서원'을 이루는 9개의 서원

**소수서원** 1543년에 최초로 건립. 건물, 공간의 기본 요소와 제향과 강학 관련 규정을 처음으로 수립하여 서원의 기준이 되었다.

**남계서원** 1552년에 건립. 강학 공간의 뒤에 제향 공간을 배치하고 유식 공간까지 완벽하게 갖춘 전학후묘의 공간배치를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옥산서원** 1572년에 건립. 서원이 교육과 출판·장서의 중심 기구로 기능하게 된 것을 보여주며, 정문에 누마루 건축물을 처음으로 세운 서원이다.

**도산서원** 1574년에 건립. 사회와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친 서원으로, 서원이 학문과 학파의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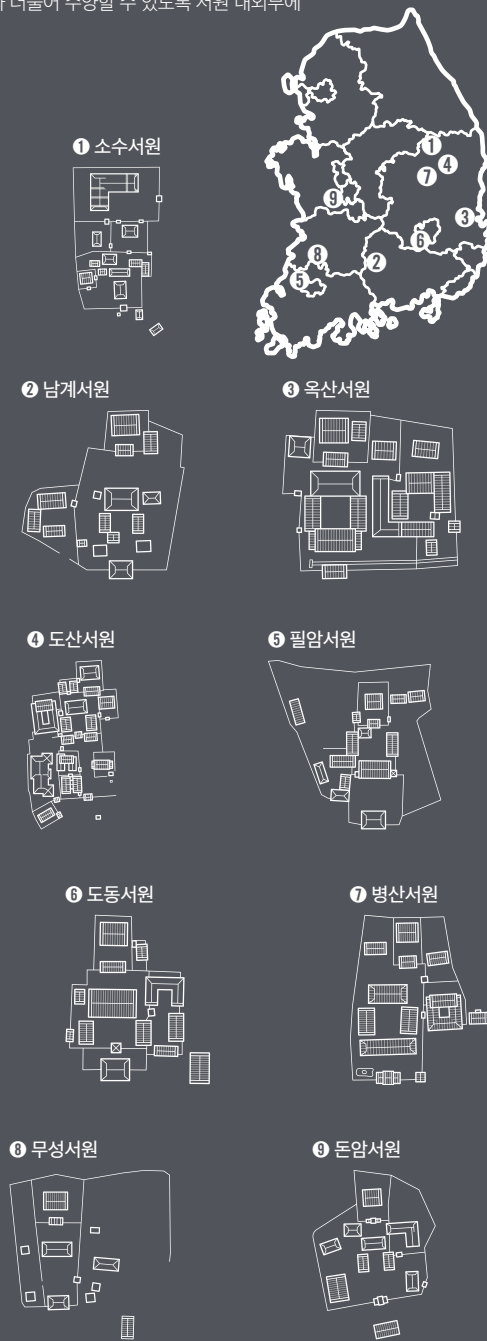
**필암서원** 1590년에 건립. 호남지역의 평탄한 지형에 맞추어 강당과 기숙사가 사당을 바라보도록 건물을 배치하여 예의를 표했다.

**도동서원** 1605년에 건립. 자연과 조화를 이룬 서원의 특징을 대표한다. 비탈진 지형을 이용해서 낙동강을 바라보게 건물을 세운 건축 배치가 탁월하다.

**병산서원** 1613년에 건립. 만대루는 서원 누마루 건축 형태의 탁월한 사례이며, 서원의 역할이 교육기관에서 여론 수렴지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무성서원** 1615년에 건립. 지역의 학문 부흥과 성리학 전파에 힘쓴 서원이다. 향약의 바탕이 되었으며 20세기 초 항일 의병의 근거지가 되었다.

**돈암서원** 1634년에 건립.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 논의의 산실이며, 예학을 건축으로 표현한 강학당인 응도당이 탁월하다.



04 권두언  
유교 600년 역사, 최초의 여성 초헌관 탄생

06 서원 상식백과  
서원 요모조모 살펴보기

08 서원과 사람들 1  
영주시 문화예술과 팀장 금창현 소수서원 이야기

10 서원과 사람들 2  
문화관광해설사 우남희 도동서원 이야기

12 서원과 사람들 3  
도유사 김성수 필암서원 이야기

14 서원 포커스  
한국의 서원 온라인콘텐츠 공모전 결과

21 현장 스케치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

32 서원 깊이보기  
공동체와 서원공동체, 그리고 현재의 서원

36 서원 관리단 이야기

40 서원 소식들



## 유교 600년 역사 최초의 여성 초헌관 탄생



지난 10월 1일 도산서원 추계향사에서 조선 건국 이후 600년, 유교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초헌관을 맡았다. 이는 그동안 남성 중심으로 제례를 올렸던 전통에서 ‘금녀의 벽’을 허문 것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향사란 춘계, 추계로 나누어 일 년에 두 차례 거행하는데 제향 인물의 정신과 학문의 뜻을 후학들이 기리고 계승하는 일종의 길사(吉祀)에 해당된다. 제사에는 초헌, 아헌, 종헌관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종묘제례에서는 초헌관을 임금의 딸, 아헌관을 왕세자가, 종헌관은 영의정이 맡았다. 서원 제례에서도 ‘초헌관’의 역할이 가장 막중하다. 첫 잔을 올리는 역할뿐 아니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향사를 총 주관하고 책임을 맡는 자리기 때문이다. 향사 전날 아침부터 분향(焚香), 집사분정(執事分定), 독약(讀約), 생간품(牲看品), 초헌관의 강의, 석미(析米), 습례(習禮) 등의 여러 절차를 절도 있게 주관하고 제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초헌관의 역할이다.

도산서원은 그동안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꾸준히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2년 당시까지 여성에게 굳게 닫혔던 서원의 사당 문을 열어, 서원 창설 426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예(禮)란 “현재와 합당해

야 하고 과거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宜於今而不遠於古)”는 퇴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틀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여성에 대한 문호개방을 알묘례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각성이 근래 서원 운영위원장인 퇴계 종손을 비롯하여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 등 구성원들 사이에 싹텄다. 그 결과 헌관도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하고 합리적 선정 기준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도산서원의 발전과 퇴계학 현장, 나아가서 덕행과 학행을 갖추고 한국의 서원과 전통정신문화 창달에 공적이 뛰어나고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사람 등이 그 기준이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본 필자가 초헌관으로 선정되었다. 일찍이 선비정신과 서원의 참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국의 서원 9곳을 세계유산에 등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며, 이에 대해 도산서원 측에서 감사의 의미로 화답한 것이다.

이는 서로 존중하는 상생으로 역사의 새장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여성 초헌관이라 전례가 없어, 복식을 정하는데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서원의 향사라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소박하지도 않은 품격 있는 복식을 마련했으며, 여성 초헌관의 제관복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주요 요건은 건물의 보존이 잘되어 ‘원형이 유지된 점’이 컸다. 그러나 건물의 유지와 보존은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해야 한다. 서원의 기능에는 제향, 강학, 유식으로 자연과 함께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인격을 도야하고 존경하는 선현들을 기려 그의 학풍을 이어받고 진정한 정신을 계승하는 참뜻이 새겨져 있다. 교육기능은 근대 서양교육이 들어와 주도하면서 퇴색됐지만, 제향기능은 설립 때부터 지극한 정성으로 경건한 절차를 거쳐 운영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다. 서원의 제향 모습을 볼 때면, 역사 대대로 이어온 정성이 하늘에 닿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제 서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미래의 정신적 원동력을 자연의 순리와 인성교육을 중시한 유학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서원의 가치도 재평가되고 있다. 모두가 물질적 성공에 치중할 때, 공허해질 수 있는 도덕적, 정신적 가치를 잡아주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서원이 지켜온 의미가 더욱 돋보이기 때문이다. 서원의 가치는 지나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힘이 될 것이며, 한국의 문화유산을 넘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것이다.

2020년 12월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배용**

##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bird perched on a winding, branch-like structure. The bird is dark brown with a white belly and a small white eye. The structure consists of several semi-circular, mushroom-like shapes connected by a continuous, wavy line. The entire illustration is rendered in a minimalist, line-art style with a limited color palette of brown and white.



# 한국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

## 영주시 문화예술과 팀장 금창현

글. 최대규 사진. 김오늘

성리학의 나라 조선은 국가 초기에 성균관을 중심으로 관학이 발달했다. 하지만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집현전 폐지, 연산군에 의한 성균관 황폐화 등을 겪으며 관학은 점차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도학을 이상으로 삼던 사대부 사림세력들은 그들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서원'을 중심으로 강학과 제향을 이어나갔다. 그중에서 최초의 서원이 바로 소수서원이다.



1. 학생들의 기숙사인 학구재와 지락재에 대해 설명하는 금창현 팀장



2. 강학당 너머 문성공묘의 모습이 보인다.

### 한반도 최초의 사액서원, 그 위상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백두산에서 험하게 뻗어 내린 백두대간이 지나는 자리라 그런지 영주는 산과 골이 깊다. 덕분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군사 요충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영주는 '학문'의 고장이 되었다.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안향을 배향하고 그의 가르침을 잇는 백운동서원을 세운 뒤부터다. 조선 중종대에 강학당을 짓고 이곳에서 성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후 명종대에 새로 부임한 퇴계 이황이 조정에 사액과 국가 지원을 요청하면서 새로이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사라지지 않고 한반도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그 위치를 굳건히 지켜냈다.

현재 소수서원은 영주시에서 관리사무소를 두고 서원의 원형보존과 홍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영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지난 2019년 우리나라 9개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오랜 역사와 원형을 잘 유지해온 소수서원을 심사단에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2017년 한 차례 등재에 실패한 후, 원인을 파악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등재를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소수서원이 지닌 '원형' 그대로의 가치, 최초 사액서원이라는 특징을 잘 설명했던 것 같네요.”

영주시 문화예술과 금창현 팀장은 비록 등재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서원 관계자 모두가 절차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고 우리 서원의 항구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뜻을 모아 세계유산 등재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자연에 순응한 독특한 배치 돋보여

소수서원은 이후 시대의 서원들과 그 배치가 좀 다르다. 중기 이후 자리잡은 전학후묘의 형태가 아니라, 강학의 중심인 명륜당이 동향, 배향의 중심 공간인 사당이 남향에 자리잡고 있다. 기타 전각들도 어떤 중심축을 설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입구부터도 다른 서원과는 좀 다르다. 서원 대부분이 삼문 형식을 따르는데 비해 소수서원의 정문이라 할 수 있는 '지도문'은 그렇지 않고 한칸으로 되어 있다. 그 오른쪽에는 죽계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경림정이 있는데, 주변을 둘러싼 소나무와 함께 운치있는 모습을 자랑한다.

“주세붕 선생은 경험정 맞은편에 성리학을 수학하는 유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덕목인 '경'자를 새겨놓았습니다.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성리학적 의미를 깨달으라는 뜻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일까? 소수서원의 건축 배치는 그 자체가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또한 성리학적 이치와도 잘 어울리는 절묘함이 있다. 유생들이 숙식하며 공부하던 재사도 소수서원의 그것은 조금 다르다. 보통 일당양재의 원칙에 따라 동재, 서재로 구분하는데 비해 소수서원은 일신재, 직방재라 부른다. 현관은 두 개이지만 집은 한 채로 이어져 있고 방향도 남북향이다. 이렇게 건축물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 중요한 건 이곳에 녹아든 선비들의 세계관이다. 소수서원은 '천인합일'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형'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소수서원만의 매력이다. 앞으로 소수서원의 매력이 보다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 서원향사에서 준례(遵禮:예법을 따름)가 가장 완벽한, 도동서원

문화관광해설사  
우남희

글. 최대구 사진. 조병우

배움과 제향의 공간인 서원에는 지켜야 할 예가 있다. 특히 도동서원은 그 준례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이는 한훤당 김굉필 선생이 소학 공부를 통해 모든 일의 근본인 예(禮)를 실천하고자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시간은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엄격하게 진행되는 향사, 도동서원 특유의 분위기가 외려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1.도동서원 중정당 앞에서 서원의 내력에 대해 소개하는 우남희 문화관광해설사

## 한훤당 김굉필의 사상을 이어받아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다른 서원에 비해 도동서원에서 준례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향사는 향사홀기에 따라, 음복례는 준례홀기에 따라 진행된다. 예전에는 제관 모두에게 돌아가며 순배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오늘날엔 5집사(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대축)에게만 순배를 하는지라 그만큼 단축되었지만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예전과 다르지 않다. 이 준례의 시간은 향사를 지낸 것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자 서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도동서원이 다른 서원에 비해 준례가 이렇듯 엄격한 것은 예를 실천하고자 했던 김굉필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이어받으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강경입지가 뛰어난 도동서원의 구성

일반적으로 서원의 입지조건은 배산임수에 남향이다. 도동서원은 뒤로는 대니산, 앞으로는 낙동강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전학후묘(前學後廟)이지만 방향은 남향이 아닌 북동향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남희 해설사의 답은 의외로 간명했다. “현풍 쌍계리에 있던 서원이 정유재란의 병화로 이곳 대니산 자락으로 와 다시 짓게 된 것은 한훤당 선생의 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방위는 북동향이지만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 방위를 보

기에 도동서원에서는 사당이 있는 남쪽이 북쪽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굳이 방위를 운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도동서원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9개의 서원 중, 성리학적 측면의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지어진 건물이다. 외삼문인 수월루와 강당인 중정당, 그리고 사당의 배치가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사상을 담았고, 기숙사인 좌우 동서재도 이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

## 담장만으로도 ‘보물’, 아름다운 서원

“담장은 일반적으로 경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보는 이에겐 대체적으로 건조하고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동서원의 담장은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 높이가 다르고 미적(美的)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도동서원의 담장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천원(天圓)’과 반듯하다는 뜻의 ‘지방(地方)’을 모두 사상적으로 담고 있어요. 이는 각각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기도 하죠.” 과연 조화로운 모습이 일품인 도동서원의 담장이다. 특히 담장 아랫부분은 막돌을 쌓아 틈을 두어 날짐승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했다. 이는 미물이지만 생명을 중시하는 마음까지 담았음을 의미한다. 도동서원은 현대적인 기준에서 교통이 좋지 못하다. 주변에 주민도 적고 운행하던 버스도 중단됐다. 타 지역에서 오기엔 쉽지 않은 환경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기회로 도동서원 주변이 정리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많은 이들이 머물며 쉴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2. 도동서원 중정당 전경





# 호남유학의 산실, 김인후의 절의정신 깃든 필암서원

도유사 김성수

글. 김수는 사진. 김오늘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선비정신이 깃든 필암서원. 전남 장성에 위치한 이곳은 야트막한 유민산 아래 펼쳐진 너른 평지에 제향 공간인 우동사와 강학과 학문수련이 이뤄진 청절당, 유생들이 거처했던 송의재와 진덕재, 인종이 하사한 목죽도가 있는 경장각 등이 자리잡고 있다. 조선시대 서원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김성수 도유사를 만나 필암서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필암서원 경장각. 현판은 정조가 쓴 어필이다.



2. 김인후를 배향한 필암서원은 전학후묘의 구조를 잘 취하고 있다.

## 조선시대 서원의 원형 고스란히 간직

오랜 세월 묵묵히 서 있는 은행나무를 지나 홍살문으로 들어서면 팔작지붕을 얹은 확연루가 나온다. 서원의 정문이자 유생들의 휴식 처인 이곳을 지나자 밤낮 가릴 것 없이 필암서원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김성수 도유사가 서원 구석구석을 안내해준다. 하서의 13대 본손인 그는 필암서원의 재정과 사무, 행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다. 그를 따라 정남향인 청절당 대청마루에 올라 북쪽으로 난 창을 여니 내삼문과 우동사가 한 눈에 들어온다.

“창을 북향으로 낸 것은 항상 임금에 대한 충의를 지키고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과 절의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학문수련에 정진 하라는 뜻입니다. 시대의 흐름의 따라 공간도 변화하기 마련이지만 필암서원은 제향을 비롯해 교육과 학문수련, 장서 보관, 지원 시설 등 조선시대 서원의 구조를 모두 갖추고 있어요. 올해 1월 도유사로 취임한 이후 이곳에 깃들여 있는 하서의 선비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곳곳하게 이어져온 선비정신

그의 말대로 필암서원 곳곳에는 호남의 유종(儒宗) 하서의 정신이 깊게 스며들어 있었다. 청절당 양 옆으로는 유생들이 거처하는 송의재와 진덕재 있고 청절당 앞에는 인종이 하서에게 하사한 목죽도가 있는 경장각이 있다. 하서는 인종의 세자시절 스승으로 만나 이후에도 깊은 군신의 인연을 맺었다. 목죽도에는 절의를 상징하는 대나무와 영원히 변치 않는 바위의 조화를 보여주는 그림과 시가 담겨있다. 세자가 손수 그린 그림으로 마음을 전하자 하서가 군신의 절의를 지키며 충성을 다하겠다는 시로 화답한 것이다. 목죽도

에 담긴 인종과 하서의 뜻은 필암서원이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 고유의 선비정신과 일맥상통한다.

필암서원이 거들된 국난과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신념을 굽히지 않는 꾸준한 태도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하서의 절의 정신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굳건하게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 조선 성리학 강론의 장에서 청소년 인성 교육의 장으로

청절당을 지나 사당의 동쪽에는 책과 문서를 보관하는 장서각, 목판을 보관하는 장판각, 노비의 수장이 거처하는 한장사가 있다. 김성수 도유사는 필암서원의 모든 건축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핀다. 목죽도, 『하서집』, 『서원성책』, 『노비보』 등 60여 건의 자료들도 훼손 없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경장각 뒤의 내삼문을 통과하면 하서 김인후와 그의 사위이자 문인 양자정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제향 공간인 우동사가 있다. 일 년에 두 번 이곳에서는 유림과 지방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사를 지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제사, 백일장, 성독대회, 서예초대전, 학술대회, 길굿, 재현 행사 등을 할 수 없어 아쉬웠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것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후대에 하서의 선비정신과 필암서원의 우수성을 알릴 것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필암서원은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장성군과 협력해 다양한 기념행사와 홍보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념사업을 위해 3년간 100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필암서원은 이 재원을 조선 성리학 강론의 장에서 청소년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필암서원 주변 관광 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 한국의 서원 온라인콘텐츠 공모전 결과

정리.편집실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의 서원 온라인콘텐츠 공모전'이 열렸다.  
한국의 서원 9곳 중 한곳 이상에 대한 방문수기, 사진, 영상 등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총 688명이 참여했으며 뛰어난 작품들 중 함께 공유하고 생각해볼만한 작품들을  
<서원산책>에 공개한다. (편집자 주 : 지면에 실린 수기는 분량이 조절되었습니다. 원문은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필암서원

최우수상

## 필암서원, 역사를 틔우다

글\_박성근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역사학자 ‘에드워드 헐릿 카’의 역사관이다. 이 말에는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통찰한다는 함의가 담겨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세상은 변화에 적응하라며 채찍질한다. 지나간 역사의 겹쳐한 성찰보다 현재의 특별한 성취와 속도를 강요한다. 역사는 승자에 대한 기록을 우선한다. 밀려난 패자의 역사는 외면받기 쉽다. 그러나 패자의 역사도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으면 전승되어야 한다.

43년 전, 형님의 첫 교사 발령지는 전남 장성이었다. 나는 입대하기 전, 인사 차 형님의 하숙집을 찾았다. 그리고 역사 교사인 형님 덕분에 생각지도 않게 처음으로 ‘필암서원’에 들렀다. 당시 형님의 진지한 설명을 들으며 감동을 느꼈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세계유산 등재 기념 차 두 번째로 필암서원을 방문했다. 첫사랑 같은 내 스물한 살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홍살문 입구에서 한참을 섰다. 그리고 청절당과 동·서재에서 옛 유림과 마주했다. 팔작지붕이 화려한 경장각에서는 인종이 하사한 묵죽도에 반했다. 장판각에서 문향을 맡고 우동사에서 제례를 베풀었다. 나는 본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주인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오래전 내가 필암서원에서 빌려 평생 나를 깨우치고 북돋았던 ‘이론과 실천의 균형’이라는 감동이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거의 반세기 동안 그리움을 버텼다. 형님의 마지막 여행일지도 몰랐다.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기 위한 필암서원은 취장암을 앓는 형님께서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가장 보고 싶어한 곳이었다. 나는 앞서 걸어가는 평생 ‘역사인’인 형님을 보며 수없이 울컥했다.

서울로 가는 길, 밤안개가 자욱했다. 오른쪽만 겨우 남은 달이 우리를 끝없이 따라왔다. 초승달은 이제 새살을 틔울 일만 남았다. 문득 자동차에서 전인권의 노래 〈사랑한 후에〉가 장엄하게 흘렀다. 우리는 왜 거기 필암서원에 서 있었는가? 사랑한 후에 남은 그 처절한 부재는 무엇일까? 조수석에 앉은 형님이 숨 죽여 우셨다. 나는 전면의 차창만 응시했다. 이를 악물며 내 울음과 맞섰다. 이제 나도 칠순을 향해 늙어간다. 그러나 초조하지는 않다. 이번 5월, 형님의 묘소에 참 좋아하시던 라일락을 바쳤다. 역사의 근본을 잡고 역사와 자분자분 대화하던 한 이름 없는 역사가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토록 필암서원을 사랑하던 한 남자가 거기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애та게 형님을 부르자 몇 움큼 역사가 싹을 틔워 다시 자라났다. 돌아오는 길, 눈물을 숨기려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름 모를 새떼들이 더군자로 날아 막 낮달을 자르고 있었다.



우수상

## 삼대가 찾은 위대한 유산

글\_김흥진



어린 시절 나는 동네 훈장님이자 한학자였던 할아버지께 한자와 예를 배웠다. 할아버지는 종종 아버지와 나를 데리고 인근 지역에 위치한 돈암서원에 다니곤 했다. 돈암서원은 성리학의 실전 이론인 예학을 우리 현실에 맞게 보급한 사계 김장생 선생을 기린 곳이라고 할아버지께 배웠다. 그래서인지 그 시절 나에게 돈암서원은 살아있는 예학과 예의 전당과도 같았다. 할아버지는 돈암서원에 갈 때면 늘 서원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할아버지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나는 어려서부터 서원을 아주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서울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날 때면 고향에 내려가 돈암서원을 찾곤 한다. 얼마 전 나는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아버지를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돈암서원을 방문했다. 그 옛날 내 손을 잡고 이것저것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또 다른 3대가 모여 돈암서원을 찾은 것이다. 어린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돈암서원에 들어가 하마비와 홍살문을 지나자, 2층 누각이 웅장한 산양루가 우리를 반겼다. 산을 우러러 보는 누각이라는 이름처럼, 태산처럼 높은 스승을 본받고자 했던 제자들의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다. (하락)

우수상

## 서원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글\_문예찬



서원은 볼거리가 없다. 내가 처음 소수서원을 방문했을 때의 감상은 한마디로 '참 볼거리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소수서원을 비롯한 여러 서원을 방문했을 때 나와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이나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도 아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서원을 직접 방문해 본 사람들에게조차도 의아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문화재의 가치를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에 둔다. 물론 이러한 척도들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이러한 척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해당 문화재가 가지는 의미와 이 문화재를 만들고 이용한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다.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조선의 이데올로기 그 자체였다. 마치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리학을 이해하고 그 의미와 뜻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비다. (하락)

우수상

## 마음을 비우고 채워가는 곳

글\_최옥숙



작년 7월 무렵, 초등학교 교감으로 퇴직한 친구에게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자신의 고향인 경주 옥산서원이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정읍 무성서원 등 나머지 8곳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함께 다녀오자는 권유였다. 평소 나 역시 사찰이나 서원 같은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친구와 동행하기로 했다. 친구는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옥산서원과의 인연을 풀어놓았다. 아버지를 따라 처음 옥산서원에 갔던 기억과,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서원을 찾아가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성을 잡았다는 얘기였다. 일찍이 옥산서원에서 학문의 즐거움을 배웠기 때문이었을까? 자신이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옥산서원의 영향이 컸다고 했다. 기차에서 내려 버스로 환승해 옥산서원에 들어서자 친구가 조곤 조곤 역사에 대해 설명해준다. 옥산서원은 이언적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1572년에 설립되었는데, 선조에게서 옥산서원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언뜻 보기에도 옥산서원은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띤 당대 서원에 비해 질서정연한 형식을 보이고 건축물에서도 절제가 묻어났다. 옥산서원이 지닌 그 고요함에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것 같았다. 옥산서원은 공부하는 장소인 구인당이 앞면에 위치해 있고, 제사를 지내는 체인묘가 뒤쪽에 위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을 띄고 있었다. (하락)

우수상

## 새롭게 다가온 도산서원의 품으로

글\_양지현



그날은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세계유산축전의 개막일이었다. 봄이면 퇴계 선생께서 무척 사랑하신 매화향이 가득하고, 여름이면 낙동강이 시원하게 감싸는 곳, 가을에는 서원 입구부터 붉디붉은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겨울에는 새하얀 눈으로 고요한 곳. 그렇게 고즈넉한 곳이 바로 그동안 본 도산서원이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개막을 축하하는 동서양의 음악공연과 무대극 소리가 서원을 메웠다. 이러한 공연은 서원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퇴계 선생께서 지은 <도산십이곡> 합창이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또한 올해는 서원 창건 후 처음으로 야간개방을 하고 일반인들도 의례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퇴계 선생께서는 늘 마지막한 유정문까지 나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직접 손님을 맞이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서원의 큰 변화들이 마치 선생께서 우리에게 서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 기쁘고 감동적이었다. 이날은 축전 기간 내 특별전시장도 있었지만 서원 안쪽에 자리한 옥진각이 특히 더 눈길을 끌었다. 옥진각은 퇴계 선생께서 열 일곱살이던 선조에게 성군이 되길 바라며 지어 올린 「성학십도」를 비롯해 각종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선생의 지행합일의 삶과 평생 소망한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에 대한 염원을 느낄 수 있다. (하락)





최우수상 비오는 날의 옥산서원 촬영\_김혁제



우수상 빨리 배우러 가자 촬영\_박선



우수상 배롱꽃 핀 병산서원 촬영\_김정훈



우수상 장성 필암서원의 거울 촬영\_이창배



우수상 입교당의 배롱나무 액자 촬영\_김상수



장려상 흥겨운 필암서원 촬영\_조경원



장려상 옛 선인들의 발자취 촬영\_백서이



장려상 논산 돈암서원 백일홍 촬영\_김기화



장려상 도동서원 중정당 촬영\_심태호



장려상 달성 도동서원을 찾다 촬영\_박태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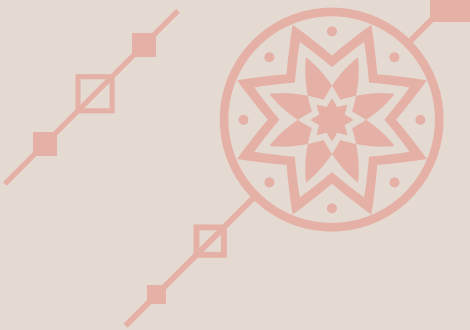
장려상 호기심 촬영\_이도은



장려상 퇴계 이황의 흔적 촬영\_박기석



장려상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촬영\_권영주



방문수기

최우수상	박성근	필암서원, 역사를 틔우다
우수상	김홍진	삼대가 찾은 위대한 유산
우수상	문예찬	서원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우수상	최옥숙	마음을 비우고 채워가는 곳
우수상	양지현	새롭게 다가온 도산서원의 품으로
장려상	김성준	우리 정신의 공간, 옥산서원
장려상	이지연	후손들에게 서원의 의미는
장려상	송병호	진보적 선비문화의 중심, 무성서원
장려상	서현정	학교 밖 참교육 공간, 소수서원
장려상	박서연	누구나 즐겨보자, 서원 둘러보기!
장려상	최진영	옥산서원이 전해준 찬란한 울림
장려상	정선아	봄, 새내기 추억이 피어난 도산서원
장려상	유지호	옥산서원의 여름을 읽다

사진

최우수상	김혁제	비오는 날의 옥산서원
우수상	박선	빨리 배우러 가자
우수상	김정훈	배롱꽃 핀 병산서원
우수상	이창배	장성 필암서원의 거울
우수상	김상수	입교당의 배롱나무 액자
장려상	조경원	흥겨운 필암서원
장려상	백서이	옛 선인들의 발자취
장려상	김기화	논산 돈암서원 백일홍
장려상	심태호	도동서원 중정당
장려상	박태웅	달성 도동서원을 찾다
장려상	이도은	호기심
장려상	박기석	퇴계 이황의 흔적
장려상	권영주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영상

최우수상	박정환	유람 : 소수서원
우수상	김민철	서원 자연에 머물다
장려상	최정남	예학의 산실 돈암서원
장려상	배유미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의 서원



## 최우수상

### 유람 : 소수서원

영상 제작\_박정환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계획을 잡았지만 갑작스레 남자친구의 회사일로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된 혜진, 영주 소수서원에서 아쉬움을 달래면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다.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소수서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소수서원을 둘러보고 있는 혜진은 혼자있음에 아쉬워하지만 이내 곧...

## 장려상

### 예학의 산실 돈암서원

영상 제작\_최정남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 중 논산 돈암서원을 영상과 그림으로 담았다. 돈암서원의 입덕문을 시작으로 원정비, 양성당, 동재와 서재, 송례사, 꽃담, 장판각, 정회당 그리고 응도당까지 영상으로 담고, 마지막 응도당을 그림으로 표현한 뒤 약간의 모션을 주었습니다. 또한 서원의 느낌을 더 살려보려 생활한복을 착용하고 영상을 촬영했다.

## 우수상

### 서원 자연에 머물다

영상 제작\_김민철



학문의 뜻이 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사색하며 선현들의 공간, 서원을 둘러보면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본성을 찾아본다는 의미가 있다.

## 장려상

###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의 서원

영상 제작\_배유미



그림을 통해 한국의 서원 9곳의 대표적인 모습을 표현하였고 한국 서원의 역사와 가치, 각각의 특징을 모아 설명하며 한국의 자연과 역사, 문화, 건축, 예술이 담긴 아름다운 유산 '서원'을 친근하게 소개해 보았다.

## 현장 스케치

#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 개막식

정리\_편집실

400여 년을 존속한 우리나라 대표적 교육기관, 서원. 지난 2019년 세계유산 등재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지난 2020년 7월에 그 첫 해를 기념하는 세계유산축전이 열렸다. 품격 높은 유교문화와 지성적 가치를 알린 이번 축전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서원의 문화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한국의 서원, 세계로 알린 시간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주관한 2020세계유산축전의 개막식은 식전 행사, 기념식, 경축 음악회 순으로 이루어졌다. 식전 행사에서는 퇴계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상황 무대극인 '인류의 스승 퇴계 선생', 국악랩소디, 전통 타악 공연등이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 이배용 이사장은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서원의 미래를 마음에 새기면서 세계 유산 품격에 맞는 보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축전은 개막식 행사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에서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라는 주제로 7월 한달 간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했다. 특히 이호신 화백의 9개 서원 회화전을 비롯해 공연, 재연행사, 세미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그 뜻깊었던 축제의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1. 판소리 공연



2. '스승을 그리며(일무현정)' 공연





(서원 회화전)

#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



전시회 커팅식

(서원 특별전)

# 서원,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



1. 유물 전시  
2. 서원 현판 관람

# 소수서원, 향사 재연



- 1. 행사 관련 명부 작성
- 2. 소수서원 유림 및 행사 관계자 기념 촬영
- 3. 제향을 지내는 모습
- 4. 국악 실내악 공연





# 남계서원, 한시 백일장 및 서예 실기 대회

함양 남계서원에서는 ‘일두 정여창 선생을 그리며’라는 주제로 서예와 한시 백일장 대회가 열렸다. 7월 10일에는 서예 실기대회가 열렸으며, 7월 17일에는 한시 백일장이 진행됐다. 이에 입상한 작품은 축전 기간 중 남계서원 내에 전시되었다.



1, 2. 서예 실기대회 진행 모습(함양 고운체육관)  
3. 한시 백일장(남계서원)  
4. 서예 수상작품 전시



# 옥산서원, 한 · 중 학술대회

경주 옥산서원에서는 ‘동방의 지혜, 세상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학문 교류를 통한 한 · 중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를 통해 주자와 회재 이언적과 관련한 유적과 유물을 접하고, 서원의 중요한 가치인 ‘심원록’을 번역 · 출간하여 경주지역의 유림과 유학의 모습을 조명되었다.



1. 세계유산 등재기념비 제막식  
2. 중국 남평시장과의 화상 연결  
3. 기념사진 촬영  
4. 토론 진행 모습





# 도산서원 전시회, 인류의 정신 가치를 이야기하다

안동 도산서원에서는 7월 2일부터 19일까지 '인류의 정신 가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도산서원의 역사와 문화, 현대인에게 주는 의미 등을 사진, 그림, 영상 등을 이용해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도산서원의 감동을 전달했다.



1, 2. 전시관 내 외부 모습  
3. 전시 설명  
4. 체험관 운영

# 필암서원, 고유제 및 성독회

장성 필암서원에서는 7월 19일 '서예로 품는 선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필암서원 세계유산 1주년 기념 축전이 열렸다. 필암서원의 독특한 고유제 하서 김인후를 소개하는 전시, 서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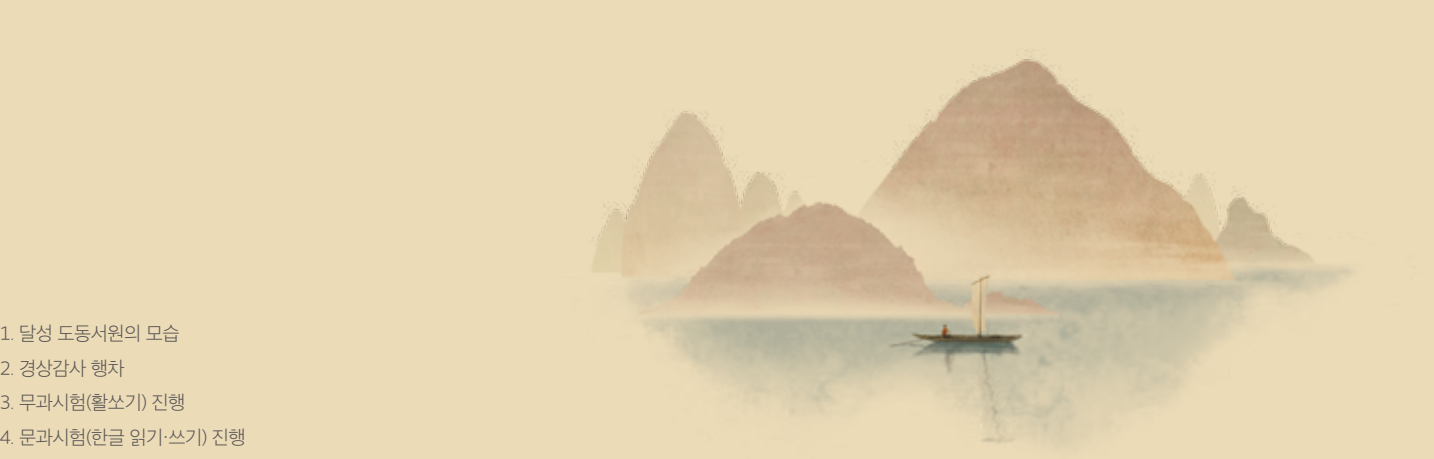
1. 고유제 진행  
2. 성독회 진행  
3. 기념사진 촬영  
4. 하서 전시관 운영





# 도동서원, 과거제 재연

달성 도동서원에서는 7월 11일 ‘지혜로 여는 대동세계’라는 주제로 과거제 재연행사를 진행했다. 조선시대 문·무과 재연행사와 부대행사, 관람객을 위한 사진촬영 공간 제공, 전통의상 체험, 전통 민속공연·전통무예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1. 달성 도동서원의 모습
2. 경상감사 행차
3. 무과시험(활쏘기) 진행
4. 문과시험(한글 읽기·쓰기) 진행



# 병산서원, 충효기행 프로그램

안동 병산서원에서는 ‘서애 선생의 나라사랑’이라는 주제로 충효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박 3일을 서원에서 지내며 서애 류성룡이 보여준 나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서원 체험 (서원 스테이)’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했다.



1. 안동 병산서원의 모습
2. 체험적 기념사진
3. 서원의 역사교육
4. 유교문화선비길 걷기 및 투어





# 무성서원, 국악한마당

정읍 무성서원에서는 ‘국악은 풍류를 타고’라는 주제로 7월 10일 ‘KBS 국악한마당’ 행사와 촬영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광복절인 8월 15일에 KBS1에서 방영되었으며 국악인 왕기석, 박애리, 유태평양, 이선수를 비롯하여 백제풍류회, 정읍수제천보전회 등 국악단의 공연이 어우러져 우리 음악의 정수를 만나는 기회가 됐다.



1-5. 무성서원의 주-야간 풍경을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 수제현, 상춘곡 등 레퍼토리 공연으로 서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 KBS 국악한마당 1317회 방영.



# 돈암서원, 예학의 실천

논산 돈암서원에서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람됨을 위한 정성’이라는 주제로 예학의 실천, 돈암 만인소 운동 체험마당이 진행됐다. 바른 인성 지킴이 운동의 취지와 목적, 사계 김장생의 예학을 배운 뒤에는 돈암서원의 보물인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보물 제1569호)을 만나볼 기회와 실크스크린·슈링클스,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 바른인성지킴이 만인소 선언문  
2. 돈암서원의 모습  
3, 4.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 공동체와 서원공동체, 그리고 현재의 서원



글\_박성진((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사무국장)

요즈음 자주 쓰는 단어 중 공동체(community)라는 단어가 있다. 기본적으로 혈연적 유대를 기초로 성립하며,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공동 소비를 수행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공산제에서 시작되었으리라 추정되는데 통상 혈연, 지연, 우정 등과 같이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유기적 통일체를 말하며 사회 지역공동체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한다. 원시적 공동체는 종교공동체에 아직 남아 있고 고도의 정치, 경제 공동체의 대표적인 것은 유럽 정치경제 공동체를 들 수가 있다.



### 조선시대의 지역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혈연공동체로 개인의 생존과 집단 재생산을 위한 중요한 조직 단위이다. 지역을 근거로 한 자연공동체는 협동과 공감의 집단으로 전통사회에서는 혈연공동체와 자연공동체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로는 혈연과 유교적 가치에 바탕을 둔 문중,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촌락, 협동적 노동 양식인 두레, 상부상조의 규범인 계(契)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서로 작용하며 전통사회의 질서를 유지했다. 문중(門中)은 한국의 독특한 공동체로 17세기 중반 이후에 공고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의 선조 아래에서 본관과 성을 공유하는 남자 위주의 혈통을 중심으로 동성촌(同姓村)을 이루어 제사, 유교적 위계질서, 상부상조, 교육 등을 담당하는 확대된 가족공동체이다.

이러한 씨족 문중 공동체가 중심이 된 다른 하나는 촌락 공동체이다.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촌락은 대개 논을 중심으로한 지리적 경계이 따라 농가들이 모여 있는 집촌(集村)의 형태를 띠는데 가족 단

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집단이며, 공동 생산조직이고 상호부조적인 집단으로 신분적 위계질서나 관습적 질서를 강조하는 엄격한 유교적 규범이 존재했다.

촌락공동체를 이루는 두 가지의 핵심 공동체는 두레와 계(契, 禊)를 든다. 두레는 노동을 같이 하는 작업공동체로, 조선 후기 이양법(移秧法)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집약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를 위한 상호 품앗이 공동체이다.

계(契)는 동(洞)과 리(里) 중심의 생활공동체로서 마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동제(洞祭), 천재지변(天災地變)에 의한 공동 작업, 공동 물품관리 등에 대한 규약(規約)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일제시기를 거쳐 광복 이후 농촌의 공동체는 한국전쟁, 산업화, 도시화 등을 경험하면서 대부분 해체되었고, 특히 1960년대 이후 대규모 이농에 따른 농촌 인구 과소화는 농촌공동체의 인구학적 기반이 무너져 명색으로만 남아 있는 형편이 되었다.

1. 퇴계 이황 선생이 유생을 교육하며 학문을 쌓던 안동 도산서당







2. 소수서원 제향 모습  
3. 돈암서원 제향 모습

### 지역문화 중심의 서원공동체

서원은 통상 부락단위를 중심으로 설립되지는 않는다. 지역출신이나 지역에서 공이 있는 걸출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학문과 교육적 성과, 지도자로서의 품격이나 위기에서의 헌신(獻身) 등에서 지역 사회에 걸출한 업적을 남긴 분들을 함께 봉사(奉祀)하며 이 뜻을 함께하는 지역의 유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기본공동체를 뛰어넘어 한 고을의 정신적, 문화적 리더들로 구성된 공동체였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개개인의 권리를 중시할 때는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공동의 승을 둔다는 의미에서의 학연(學緣), 공동 지역사회 단위의 지연(地緣), 그리고 씨족 문중 단위의 혈연(血緣)이 중첩된 서원은 지역사회 최고의 실질적 공동체 리더였다 할 수 있다.

오늘날과는 다른 문화적 기반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지역서원은 국가나 지역에 걸출한 영향을 미친 분을 향사함으로써 교육목표와

사숙(私淑)의 지표로 삼아 삶이 지향해야 할 중심을 형성하고 함께 향사(享祀)를 엄숙히 봉행(奉行)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졌고, 원회(院會)와 향약(鄉約)을 통해 공동체의 규약(規約)과 이행에 대한 점검(點檢)을 통하여 지역 풍속 교화의 원칙을 세웠으며, 교육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이끌어갈 동량들을 지속적으로 배양(培養)함으로써 교육입국의 문명적 기초를 공고히 하였고, 각종의례를 계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상하구별(上下區別)과 장유경장(長幼敬長) 질서를 온전히 하고자 하였다. 서원 공동체라는 말은 아직은 생소한 말이겠으나 위와 같은 점에서는 조선시대의 서원은 지역공동체를 넘어선 분명한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했다 할 수 있다. 조선사회가 내외환의 위기를 딛고 오랜 역사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연, 혈연, 학연과 더불어 지역문화, 교육, 도덕 공동체라는 서원정신의 씨줄날줄이 복합적으로 얹혀 가능했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4. 필암서원은 유물전시관을 별도로 개관했다.  
5. 병산서원 강학 모습  
6. 필암서원 강학 모습



### 오늘날의 서원 운동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나라의 서원이 이렇게 세계적인 가치를 가졌었던가?’, ‘대원군이 모두 혁파했는데 600여개의 서원이 지금도 존속하는가?’ 등등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서원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 속에서 서원 본연의 가치와 방식에 준하는 활용사업들은 이미 여러 곳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서원의 틀 속에서의 서원활용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차원에서 이는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필자가 눈여겨보는 것은 지역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원운동이다. 중국 산둥성에서는 성내 도서관의 명칭이 서원으로 바뀌고 있고 전인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중심으로 서원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문화 중심으로 수십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내가 아는 지인들 중 여러 사람들이 서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사당 없는 서원 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인문학 강좌 사랑방을 운영한다든가, 고전경서 윤독을 위한 주말서원 운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문화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서원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 서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이 도덕으로 무장되어 있던 서원 공동체 정신이 21세기를 굳건하게 이끌어가는 K-저력(底力)의 한줄기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 오픈

사이트 주소 : [k-seowon.or.kr](http://k-seowon.or.kr)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이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 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합 홈페이지 제작을 진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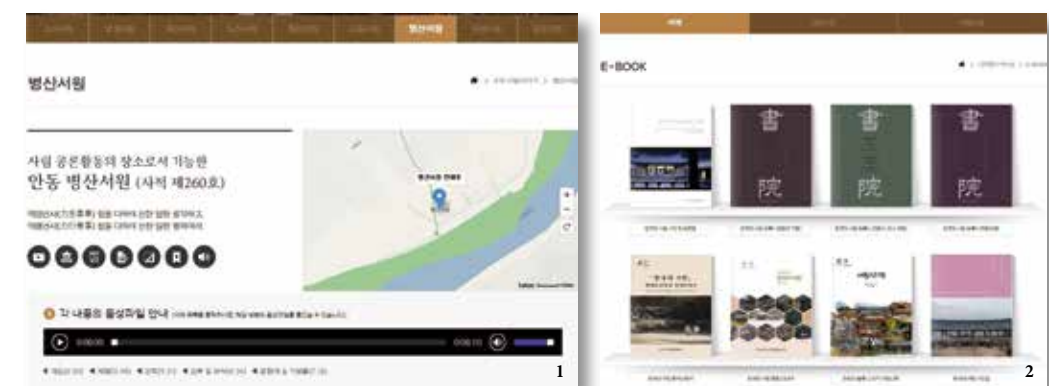
물론 이전부터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홈페이지는 운영되고 있었지만,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홈페이지 구조와 부족한 완성도, 콘텐츠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는 새로운 통합홈페이지 제작의 좋은 약재가 되어 주었다.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 끝에 2020년 12월 29일, 드디어 ‘한국의 서원’ 통합홈페이지가 문을 열게 되었다.

통합홈페이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의 서원문화, 9개 서원 이야기, 서원 공간 체험, 소통&교류, 디지털아카이브, 사무국 소식으로 구성되어있다.

통합홈페이지에는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감동을 담은 영상부터 9개 서원의 360도 파노라마 사진(VR) 및 로드투어 영상 등 다양하고 의미있는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의 소개와 설명은 전문 성우의 나레이션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 한번쯤은 눈을 감고 서원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봐도 좋을 듯 하다.

1. 9개 서원 이야기
2.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2021년 추진 사업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추진의 주축이 되어, 2019년 7월, 대한민국의 14번째 세계유산목록 등재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등재 이후에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교육홍보와 보존관리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통합 교육홍보사업

- 국내·국제 학술포럼 개최
- 한국의 서원 소식지 '서원산책' Vol. 3, Vol. 4 발간
- 문화관광해설사 및 서원관계자 대상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심화교육 실시
- 청소년 한국의 서원 알리기 운영
- 한국의 서원 가상체험 AR 제작(기획)



국내·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의 서원 가상체험 AR제작

### 통합 보존관리사업

- 통합 모니터링
- 무인계수시스템 구축(2차, 6개서원)
- 세계유산 정기보고 DB 구축
- 고정밀 정사영상 촬영
- 주요 건축물 이력 데이터 구축



무인계수시스템 구축



세계유산 정기보고

## 발간도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는 '한국의 서원'의 보존관리와 교육홍보를 위한 도서들을 발간하였다. 발간 도서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안내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내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건축도면집,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통합안내판 디자인, 한국의 서원 통합홍보 및 활용을 위한 연구보고서 등이 있다. 발간자료는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k-seowon.or.kr)에서 E-BOOK자료 또는 PDF 자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수상 소식

①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 파워코리아가 주관한  
'2020 제 15회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에서  
문화재보존 부문으로 수상하였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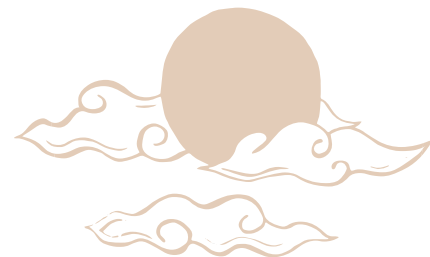
HDI인간개발연구원 대한민국 '인본주의적'  
기업가를 찾는 '제6회 HDI인간경영대상'에서  
공로상 부문으로 수상하였다.



## 1

## ‘한국의 서원’ 3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현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은 모두 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산들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서원 건축물은 보물 제1402호 「소수서원 문성공묘」, 보물 제1403호 「소수서원 강학당」, 보물 제59호 「숙주사 지 당간지주」, 보물 제 210호 「전교당」, 보물 제211호 「상덕사 및 삼문」, 보물 제350호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우 담장」, 보물 제1569호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7개가 있었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올해 신규로 ‘한국의 서원 3건’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다. 해당 서원은 보물 제2104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보물 제2105호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보물 제2106호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이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서원 문화재들은 절제·간결·소박으로 대변되는 유교문화를 건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고, 역사적 인물이 건축에 관여하거나 배향되고 있는 역사성이 잘 담겨있으며, 남북의 축을 따라 동·서에 대칭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공간구성이 위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수, 중건 등의 건축 이력이 기록물로 잘 남아 있는 등 가치와 특징들이 높이 인정된 건축물들이다.



1.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2.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3.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



## 2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통합안내관 설치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으나, 각 서원에서 나머지 8개 서원과 관련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는 1년간의 기획·감수를 통하여 지난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통합안내관 설치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방문하게 된다면 통합안내판을 통해 서원에 대한 개요와 정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안내판 내용은 2p에 수록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 1, 2. 안내판 설치
3. 완료된 모습







### 3

## 2021년도 ‘한국의 서원’ 춘계 제향 행사 일정

### 제향 공간으로서의 서원

한국의 서원은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된 곳이다. 서원은 교육의 강화 기능과 함께 제향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였다. 주로 비탈진 곳에 서원이 세워져 앞쪽에 강당을 세우고, 뒤쪽이자 위쪽에 되는 곳에 사우를 지어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의 위패를 모셨다.

대개 초기 서원에서 제향하는 인물은 도학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충의, 절의도 제향의 근거가 되었다. 서원의 위상은 외적인 규모보다는 사우에 어떤 분이 모셔져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에게는 제자도 많을 뿐 아니라 그를 모시는 서원도 많았다.

서원에서 생도들은 평소에는 강당에 모여 글공부를 하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 등 삭망에 분향을 하는 알묘를 하고, 봄과 가을 두 차례 사우에서 향사를 지냈다. 사족들은 이를 통해서 지방사회를 교화하면서, 서원을 선현에 대한 제향공간으로 기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향의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원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서 제자나 후손들이 선현들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제향의례가 계속 이어지는 한 스승의 정신과 서원의 전통은 함께 계승될 것이다.

### <춘계 제향행사 일정표>

서원명	춘계제향일(예정)
소수서원	04.19.(음력 03.08.)
남계서원	03.30.(음력 02.18.)
옥산서원	03.30.(음력 02.18.)
도산서원	03.30.(음력 02.18.)
필암서원	03.30.(음력 02.18.)
도동서원	03.30.(음력 02.18.)
병산서원	04.19.(음력 03.08.)
무성서원	03.30.(음력 02.18.)
돈암서원	03.27.(음력 02.15.)

